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화순 적벽 투어' 운행코스 변경

내달 13일부터 물염정코스 취소...오전 출발 9시30분 변경 방향정에서 망미정까지 연결길 조성 적벽 근접 관람 가능

화순군은 지난 3월 24일부터 운행에 들어가 5월 16일 현재 94%의 예약률을 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화순적벽 버스투어' 노선을 6월13일부터 변경하여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항은 올해 추가된 물염정 코스는 운행하지 않고 방향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오전 출발시간을 9시부터 9시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번 운행코스 변경은 물염정 추가운행으로 운행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고 방향정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투어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군은 방향정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서 투어객들이 여유롭게 적벽을 관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주변을 산책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군은 방향정에서 망미정까지

연결길이 조성됨에 따라 6월13일부터는 적벽의 웅장한 풍경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어 투어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인기를 더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로 5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 버스투어가 날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화순적벽이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함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음에 따라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화순 적벽 버스투어는 매주 수·토·일요일 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교통비 1만원으로 투어 예약일 2주전부터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다.

변경된 내용은 6월 13일 투어일부터 적용하여 운행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해양협력 분야 국제기구 가입

광양시는 최근 중국 우호도시 푸저우시(福州)에서 열린 제1회 21세기 해양협력위원회(이하 해양협력위원회) 회원대회에 참가해 정식 회원도시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해양협력 분야 국제기구 가입으로 국제해양정책 가이드라인 수립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25개국 62개 도시가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광양시와 군산시가 참여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역 본부 부속기구로 2017년 4월 중국 푸저우시에서 정식 설립된 '해양협력위원회'는 중국정부의 최대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바탕으로 국제간 해양 실

구다. 해양협력위원회에서는 세계 연안 도시들로 협력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국제 해양 정책을 조율하고 회원도시 간에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 밖에도 광양시 방문단은 도시현황 및 관광협력 포럼'에도 참가해 광양시의 도시현황과 발전 비전, 관광민권 관광지원 등을 주제로 발표해 국제사회에 시의 위상을 높였으며, 특히 국제우호도시 간 관광협력 기반 마련 분야에

서 주목받았다. 시는 이번 해양협력위원회 가입으로 향후 회원도시간 프로젝트 공동기획과 연구성과 공유 등 해양정책 추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나주시, 미꾸라지 친환경

방제로 모기 유충 퇴치

대호수변공원 등 4곳 방식

나주시가 미꾸라지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로 모기 유충 퇴치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17일, 빗가람동 중앙호수공원, 유전저수지, 매화제대호수변공원 등 4곳에서 '친환경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모기 천적 미꾸라지 방사 행사'를 갖고 미꾸라지 68,000여 마리를 일제히 방사했다고 밝혔다.

방사된 미꾸라지는 1년생 이하로 1마리 당 하루에 말라리아 모기 폐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 유충을 600마리 이상, 일본뇌염 모기 유충을 1,100마리 이상 잡아먹는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력과 생존력이 강해 여름철 모기 발생 밀도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하천에 산소를 공급해 수질을 개선시키는 등 일석이조의 친환경 방제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빗가람동 통장단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상인회, 공무원 등 80명이 참여했다.

여름철 모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나주시는 그간 해충발생 생식지 제거, 해충 포획기 설치, 친환경 미꾸라지 방사, 수생식물에 무해한 비트제 투입 등 모기 퇴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제에 주력하고 있다.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순천민국가정원서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난 22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차우기법'에 따라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특히, 올해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유병길) 주관으로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함께 개최함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와 가족, 외국인 유학생, 원어민 강사 등 500여명과 순천·여수·광양시의 유관기관·단체장 및 관계자, 사회통합협의회 위원, 일반 시민 등 1,50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공연과 체험행사, 건강·법률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가정원의 봄꽃 축제를 즐겼다.

이와 함께 순천시 아교과 공연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순천의

료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등 11개 기관·단체가 문화공연, 드론 날리기 및 세계의상 체험, 질병예방·법률상담 등 9개 부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 추진방안'을 주제로 습지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순천대학 주관으로 학술회의도 함께 개최되었다.

학술회의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 및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등 200명이 참가하였고, 순천대학 공인숙 교수 등 전문가의 발제내용에 대한 열린 토론과 외국인들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순천=김종영 기자

순천시-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순천만 교류 활동' 시작



순천시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업무협약 체결기념 세미나가 최근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29일 순천시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순천만의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생물자

원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학술 교류다.

금번 세미나에서 순천대학교 박기영교수가 순천만 갈대생육 특성에 대해서, 정정교수가 순천만 갯벌환경과 수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들은 순천만의 갈대와 갯벌 수질 등 자연생태 변화를 수년간 실제적으로 조사해온 결과물로 순천만 보전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상득 선임연구원이 낙동강지역의

담수 습지 퇴적도 발달류에 관해서, 최경민 부장이 지역생물자원 활용 및 산업화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 또한 낙동강지역과 순천만의 생태환경을 비교하고 향후 순천만의 환경변화 예측에 도움이 되는 귀한 자료들로 평가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두 기관이 순천만의 생태환경과 생물자원의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자연생태계·수산자원 조성 앞장

백운저수지에 어린 동자개 1만 2천 마리 방류

광양시는 최근 친환경 자연생태계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수량이 풍부한 봉강면 백운저수지에 어린 동자개 1만2천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주민, 지역단체,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훗날 미래의 풍성한 어족자원이 되어줄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어린 동자개를 방류했다.

유량이 풍부한 저수지나 하천 등에서 서식하는 동자개는 저수지나 하천 등 자연에서 2~3년 정도 성장하며, 주로 봄철인 5월 중순에 봄비가 내린 후 맑은 날에 산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등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조용한 아반에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빠각빠각' 하는 소리를 내 지역에서는 '빠가사리'로도 불리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고유 담수어로서 환경적응력이 뛰어나 물 흐름이 느리거나 거의 멈춘 상태에 있는 저수지·하천·강 등 우리나라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 담수어류 어종이다.

시는 2004년부터 지역토산어종인 은어·참개·메기·잉어·붕어 등 380여만 마리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자연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족자원 보존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최병삼 해양수산팀장은 "앞으로도 잉어와 붕어, 뱀장어, 자라, 쏘가리 등 다양한 종을 지속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며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산자원을 조성해 시민정서 함양과 다양한 어족자원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파프리카, 복숭아,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신암삼